

1

[생각의 여름]

2009.9.18

2

[꽃]

2012.7.26

3

[다시 숲 속으로]

2016.6.27

3.5

[The Republic of Trees]

2019.2.27

4

[손]

2022.7.23

4.5

[시냇가]

2024.1.12

생각의 여름 - 가사들

2009-2024



생각의 여름 1
[생각의 여름]
2009.9.18

생각의 여름

1. 십이월
2. 골목바람
3. 활엽수
4. 덧
5. 동병상련
6. 서울하늘
7. 허구
8. 그래서
9. 밑
10. 긴 비가 그치고
11. 다섯 여름이 지나고

십이월

잠이 들 때엔 여름이 한창이었으나
눈을 떠 보니 싸늘한 겨울이 왔더라
나도 내가 아니었더라

여름의
영광



골목바람

막다른 골목, 바람
불어와 흠어진 맘
추스를 틔도 없이
또 다시 바람

숨이 막힐 듯, 바람
산산이 흠어진 맘
추스를 틔도 없이
또 다시 바람

세차게 바람

행복의
여름

활엽수

그대 한 그루 활엽수여
그 둥근 잎새같은 마음으로
나를 안아주오

뾰족한 아픔들이 돌아나네
뾰족한 아픔들이 자라나네
그대여 더 늦기 전에

여름의
그늘
아래
모든
것이
살아
있다

덧

비가 내리네 젖은 꽃들이 떨어지네
꺾인 자리로 다시 빗물이 떨어지네
그래서 아물지 못하는 나의 손끝은

영원의
삼각형



동병상련

시월답지 않은 띄약별
그 아래 멍하니 앉은 아저씨
앞에 대책없이 쉬어가는 붕어빵
네 마리 천원

이천 칠 년 가을
그 앞에 대책없이 쉬어가는 사람들
모두 어디로 팔려가고 있나
네 마리 천원

행복의 열매

서울하늘

나는 마치 서울하늘처럼
매캐한 걸음을 휘청이고

오늘도 도시는
그 잿빛 입술 사이로
나를 지그시 물고
하루만큼을 피워낸다
나는 그만큼 또 사라진다
검은 연기가 날린다

나는 마치 서울하늘처럼
아니 그저 나는 서울하늘이다

허구

기억에 없는 시절, 어귀 노란 새 노랗게 필뚝에
앉아 하나 남은 맥박을 꺼내 물고
닐었지

그 후로 마음이

영원의
삼각형

그래서

내 한숨이 얇아서
마음을 다 쓸어내지 못했네
그래서 이렇게 수북이 쌓였구나
내 한숨이 얇아서

바람을 먼 데서 기다렸었네

영원의
삼각형

말

서먹서먹한 시선
얼빠진 표정으로
우리의 말들은
일그러져가네
진심을 가득 담아
노래 불러보지만
이제는 나조차도
자신이 없어

누군가 말하네
거침없는 말이 있다고
한줄기 희망일까
부질없는 열망일까

진심을 가득 담아
노래를 불러보네
진심을 가득 담아
노래 불러보지만
진심을 가득 담아
노래 불러보네

웃으며 떠나네
자유로운 말을 찾아서
한줄기 희망이든
부질없는 열망이든

상관없어

긴 비가 그치고

긴 비가 그치고 모든 것이 한결 푸르다
허나 내 안의 풍경은, 풍경은 여전히
긴 비가 그치고 모든 것이 한결 선명하다
허나 우리의 계절은, 계절은 여전히

여전히
푸르다

다섯 여름이 지나고

다섯 여름이 지나고 나는 어디 있을까
다섯 여름이 지나고 나는 지금보다
아름다울까 어떤 색으로 짙어질까
푸러질까 붉어질까 창백해질까
환해질까 그늘이 질까 흐릿해질까

다섯 여름의
행복

생각의 여름 1
[생각의 여름]
2009.9.18

생각의 여름

제작 / BGBG RECORD '곰사장'
프로듀서 / 박종현, 윤덕원
작사, 작곡, 편곡, 연주와 노래 / 박종현
녹음과 믹싱 / 흰설
로고와 커버 / 변인희





ΔΠΛΓΟ
Ο Ν Γ
Ο Γ
Π Π Π Π

생각의 여름

1. 용서
2. 사실
3. 깊이 나는 꿈
4. 킬날
5. 슬픔이 없는 마을
6. 이제,
7. 꽃
8. 섬
9. 용서 (다시)
10. 너는 내가
11. 희망
12. 우회

용서

앞드리는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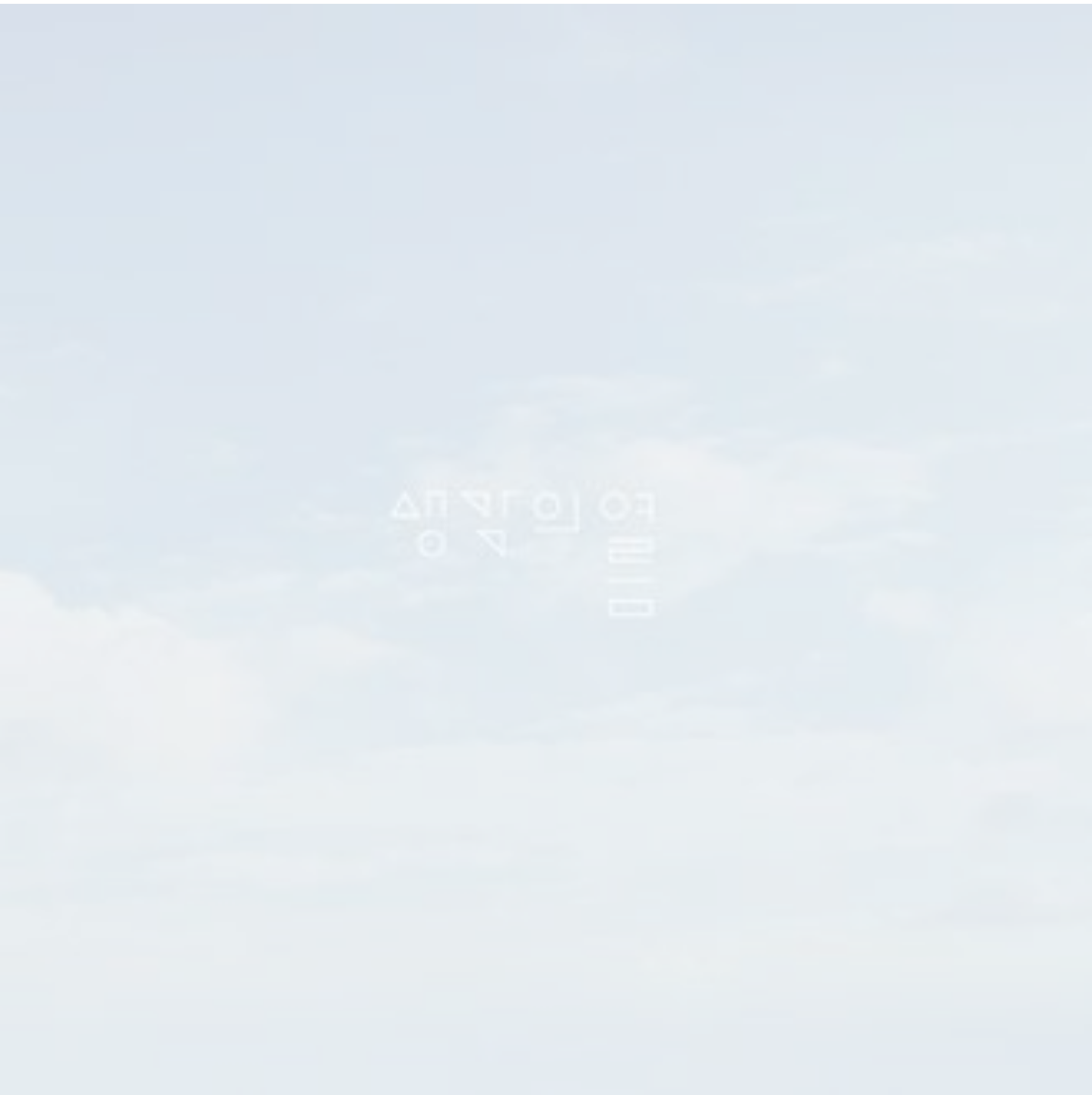
시리게 앓은
물

흥건한

행복의
영광

사실

버려지지 않는 침묵과 타오르지 않는 의지로
있소



깊이 나는 꿈

깊이 나는 꿈
깊이 나는 꿈을 꾸는 꿈
깊이 꿈꾸는 꿈
이 오래된 대기를 비집고
깊이 나는 꿈

영원의
영원

칼날

이 질긴 뿌리를 끊고
핏빛 걸음으로
호수로 거니는 꿈을
여기, 반짝이는

영웅의
영웅의
영웅의

슬픔이 없는 마을

슬픔이 없는 마을

TV를 켜도

사전을 펴도

슬픔이 없는 마을

그 말이 잊어지는 꿈을

행복의
영원

이제

꽃은 피고 새는 날고 바람은 불고 나는 사랑하고
너는 피어 너는 날아 너는 불어와 나를 사랑하고

영광의
영광의
영광의

곳

눈부신 햇살로 젖은 물빛을
그덜 서성이게 하는 그 빛을
향해

보족하게

행복의
영광

섬

찬 새벽을 허물고
어둠을 거슬러
섬
멀어질수록 빛나는
섬
과
나
사이
흐린 세월 너머
섬

섬의 어둠

용서 (다시)

엮드리는
바다

시리게 앓은
물

흥건한

영웅의 열매

너는 내가

너는 내가 너의 하늘 아래 나를
너는 내가 너의 풍경 사이 나를
너는 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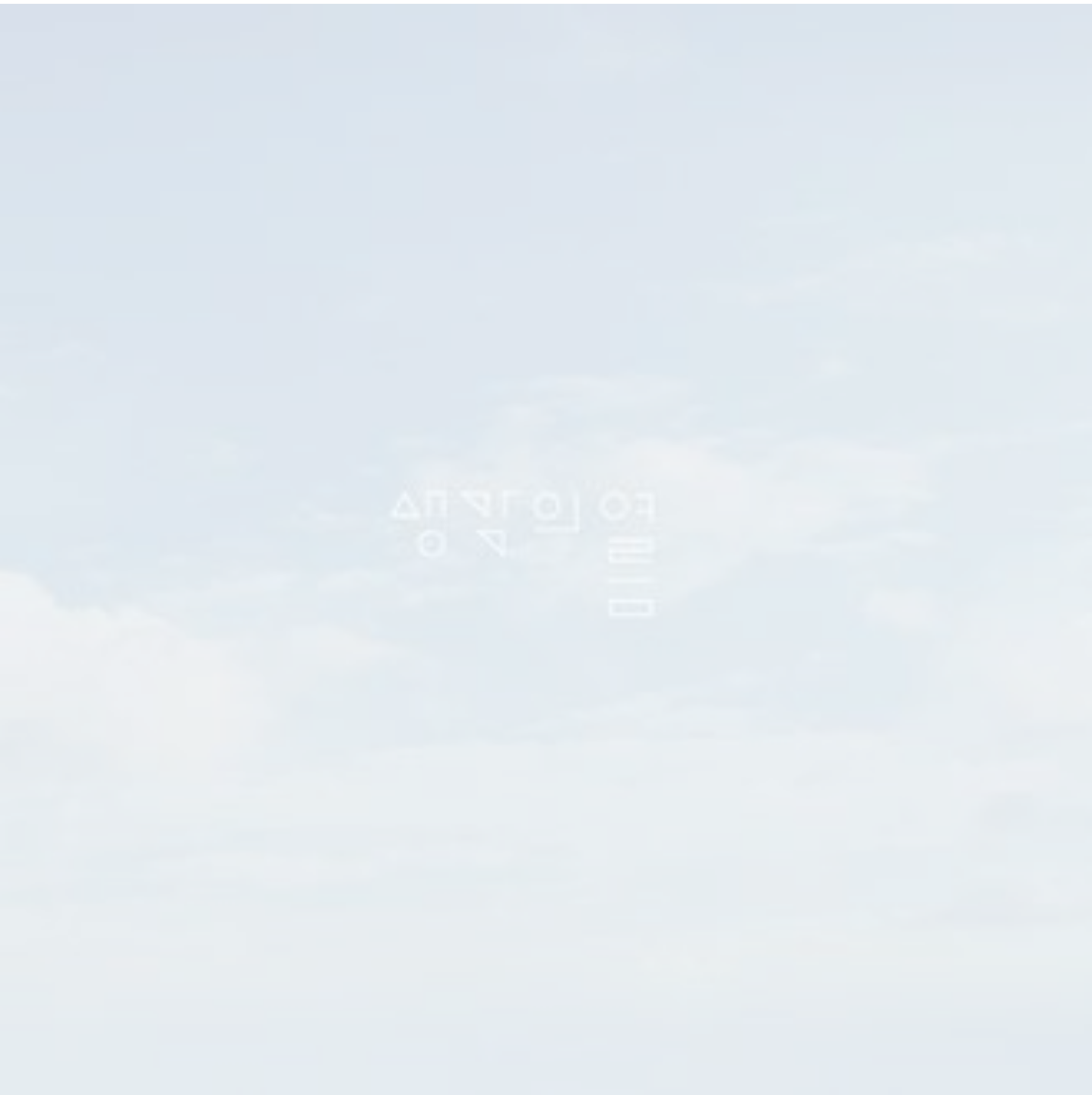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게 하네

너는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하네

사랑의
영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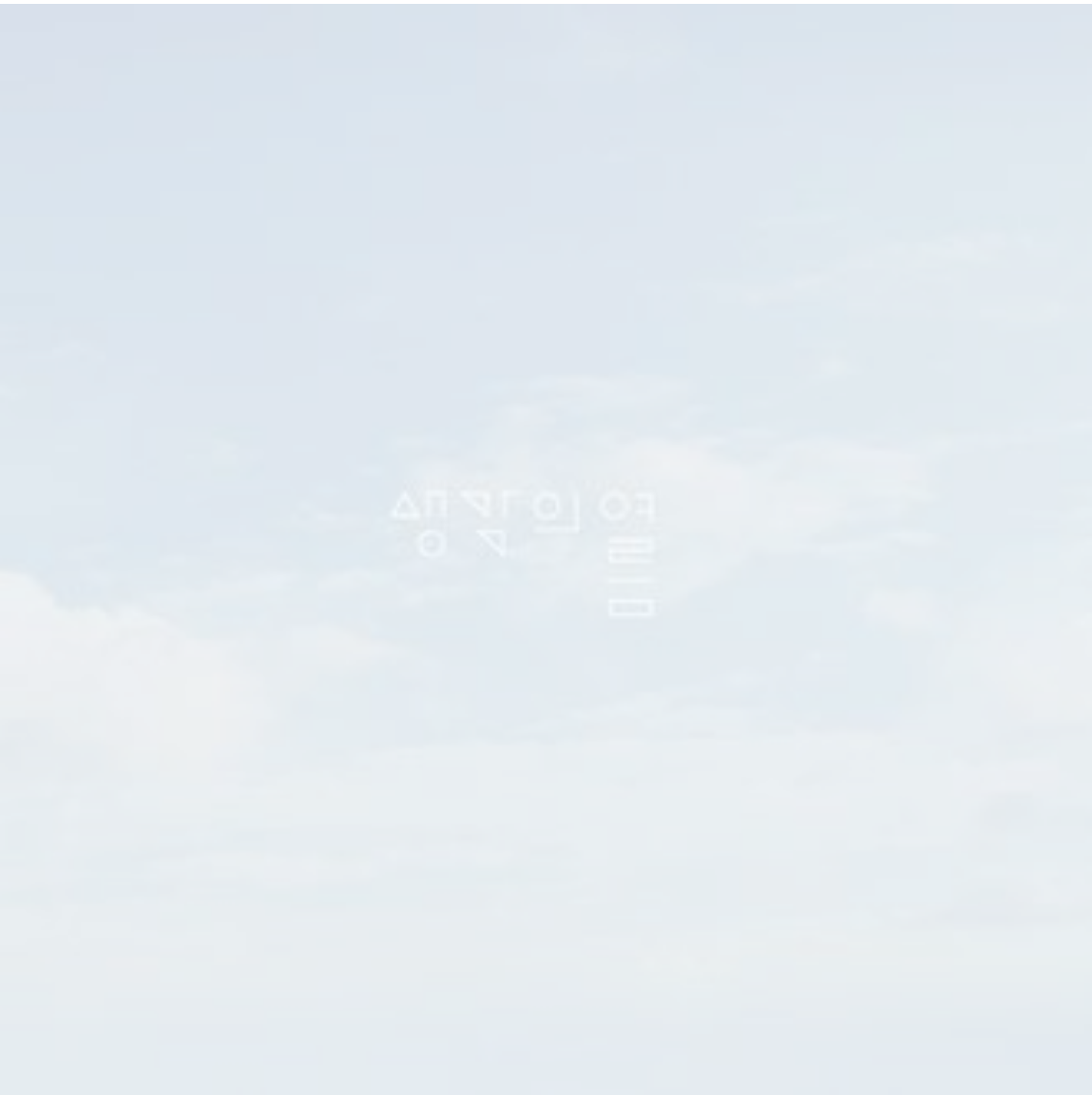
희망

네가 추억의 파도를 삼키다 끝내 게워내듯
네가 추억의 별을 삼키다 끝내 글썽이듯



우회

깃을 돌리세 사막으로
시든 사랑을 데우려네



생각의 여름 2
[꽃]
2012.7.26

생각의 여름

제작 / BGBG RECORD '곰사장'
프로듀서 / 박종현, 감악귀
작사, 작곡, 편곡, 연주와 노래 / 박종현
녹음 / 나잠수, 토마토 스튜디오
믹싱 / 나잠수, 김종삼과 조윤나(토마토 스튜디오)
마스터링 / 최효영
커버 / 김기조
로고 / 변인희



ΔΠΛΓΟ
Ο Ν Γ
Ο Γ
Π Π Π Π



FOUO
DIPLO
OF
DESIGN
AND
ART

생각의 여름 3
[다시 숲 속으로]
2016.6.27

생각의 여름

1. 두 나무
2. 봄으로 달려나가는 다니야르
3. 새
4. 양궁
5. 대전
6. 안녕
7. 침묵에서
8. 습기
9. 비둘기호
10. 포구를 떠날 때

두 나무

또 한 번의 구름을 견디고 돌아오면
여전히 너는
나의 오랜 관객인 너는 익숙히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누구에게든 으레 그런 장면들이 있다고
견뎌지지 않을 시간들이 견뎌지는 것이라고

행복의 열매

봄으로 달려나가는 다니야르*

많은 일들이 있었어
알게 된 것들이 있고

자작나무숲을 어둠이 마셔도
이 길은 운전수의 것

고향 가는 길은 많아야 수십 번이지
길 때마다 악수를 백 번은 하지

생각의 열매

*친기즈 아이트마토프의 소설(1977) 제목 『바다로
달려나가는 빼기 보스(강완구 역)』(미다스북스, 2003)
를 가져와 변용.

새

아침, 아침마다
일력으로 새를 접어날리는
사람들, 새를 접어날리는
사람들 사이로 내려앉는
접힌 적 없는 새, 땀흘리며
가쁜 숨을 쉬는 새

아침, 아침마다
일력으로 새를 접어날리는
우리

새의 일력

양궁

고개를 젖히고 바람을 재
시위를 당기듯 입을 열어
무엇이 떠날지

그게 닿을지 모르면서
입술보다 높은 허공으로
겪지 않은 중력 속으로
너의 귓가의 날씨를 모르면서
가본 적 없는 언덕을 그리면서
고개를 젖히고 바람을 재
시위를 당기듯 입을 열어

양궁의 열림

대전

모든 기차길들이 등 보이며
사방으로 흘러나갔지
스무 살이 되길 별려서
경부선을 타고 떠났지

나는 늘 하나의 작은 강으로
사는 거라고 여겼었지
때로는 온종일 [항해]*를
흥얼거리고 다녔었지

강은 돌아오는 일이 없어도
사람은 어쩌면 돌아가지
대간하고 지친 한 덩이로
경부선을 거슬러 가지

* 조동진 4집 [음악은 흐르고] (서울음반, 1990)에 실린 곡.

안녕

기억이 나도 그리워하지는 말자
그리워져도 뒤돌아보지는 말자
뒤돌아서도 걸음 내딛지는 말자

그대 이만 가시길
보내도 가지 않는 시절이여
안녕

행복의 열쇠

침묵에서

길고 하얀 침묵을 지나
다시 숲 속으로
하나의 악보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일
거기 적힌 걸음걸이와
그 박자와 빛깔을 입으려는 일
길고 하얀 침묵을 지나
다시 숲 속으로
허공에 새긴 가지들 속으로

행복의 열쇠

습기

자 이제 한 잔을 들이키고
그만큼의 고민을 뺏어내렴
그럼 나도 이 잔을 비우고
그만큼의 한숨을 쉬어줄게

너와 나의 입김이
뒤섞인 두 잔 만큼의
습기 속에서 우린
함께 숨쉬고 있구나

행복의 열매

비둘기호

아주 미우니까 미움으로 달려갈 거야
양말을 꺼신고 운동화를 짝 매고
역으로 뛰어가서는 비둘기호를 타고
경치를 보다가 졸면서 잊을 거야

영웅의 망

포구를 떠날 때*

바다 구경을 와
바다를 충분히 볼 수 있을까
“높이 오른다면...
오래 머문다면...”

하늘은 저 끝을 볼 수 있을까**
끝을 안다고 속을 알 수 있을까

서걱이는 밀들을 삼키고
포구를 떠날 때 일었네

최하림의 열림

*모슬포구

**최하림 산문집 『최하림의 러시아 예술기행』
(랜덤하우스, 2010) 26쪽 “새들은 저 끝을 볼 수
있을까”에서.

생각의 여름 3
[다시 숲 속으로]
2016.6.27

생각의 여름

제작 / BGBG RECORD '곰사장'
프로듀서 / 박종현, CR태규
작사, 작곡, 편곡, 노래 / 박종현
기타, 건반 / 박종현
전자기타 / CR태규(곡 1,2,7,8,9)
하모니카 / 진혜린(곡 3)
드럼 / 양현모(곡 4)
바이올린 / 장수현(곡 6)
녹음 / 홍기(스튜디오홍), 민상용(스튜디오로그)
믹싱 / 홍기(스튜디오홍)
마스터링 / 나잠수
커버 / 김기조 (사진 / Swan Park)
로고 / 변인희



FOUO
DIPLO
MAT
O

The Republic of Trees

나무들의 공화국

나무들의 공화국

생각의 여름 3.5
[The Republic of Trees]
2019.2.27

The Republic of Trees

생각의 여름

1. Preface
2. Looking Downward for Decades
3. Implanted in the Past
4. Relapse
5. From a Tree Perspective
6. Love me as Mosses Do (최새봄과 함께)
7. By This Bonfire
8. Late Autumn

Preface

We are wearing the world that
includes you

We are sensing the world in different
ways from you

We are touching the world that
includes you

We are shaking the world in different
ways from you

As you dance in your cloths, we dance
in the groves

Choreographing the world that
includes you

As you are planted in your fate, we
stand in vain

Suffering the world in different ways
from you

서설

너희를 비롯한 세계를 입고 있어 우린
너희와 다른 방식들로 지각(知覺)하면서
말이지

너희를 비롯한 세계를 더듬고 또
너희랑 다른 방식들로 그걸 흔들어보고 말이지
너희가 옷 속에서 춤추듯, 우리도 수풀 속에서
춤춰

너희를 비롯한 세계를 안무(按舞)하면서
말이지

너희가 운명에 박혀있듯, 우리도 공허 안에 서
있어

너희완 다른 방법으로 그걸 앎아내면서 말이지

Looking Downward for Decades

Once here came those horizontal bars
Nights and winters migrate like birds
In winter nights humans meet and hug
In late springs hands begin touching
the bars

Leaflets are scattered to disappear
Streetlights are placed and displaced
In winter nights humans meet and hug
In late springs hands begin touching
the bars

행복의
모양

사망의
모양

공터라 부르는 곳을 오래 내려다봄

철봉들이 오고
밤이랑 겨울이 철새처럼 드나들고
겨울밤에는 사람들끼리 와서 끌어안고
늦봄에는 맨손들이 와서 철봉을 부비고
전단들이 부러졌다가 사라지고
새 가로등이 걸리고 헐리고
겨울밤에는 사람들끼리 와서 끌어안고
늦봄에는 맨손들이 와서 철봉을 부비고

생각의 열매

사상범의 생각

Implanted in the Past

Roots,
Or tongues extended
By a thirsty seed
Became Longer and Longer
And thus
Knotted in place
From which they cannot escape
Any longer I can't live sober
Can't live sober
'Till this life is over

과거에 심겨

뿌리들,
목마른 씨가 내민
혀들이 자꾸 길어져
뭍이었지
하나의 장소에
벗어날 수 없도록
마시지 않으며 살 수 없도록
안 마시고 살 수가 없도록
사는 게 지나갈 때까지는

생각의
영역

사실상의 심겨

Relapse

A harsh rain paws
And pulls our petals off.
Again, raindrops claw
Where the petals were.
Our wounds in fingertips
Can never be healed.

영웅의
꿈

사망의 노래

덧

비가 내리네 젖은 꽃들이 떨어지네
꺾인 자리로 다시 빗물이 떨어지네
그래서 아물지 못하는 나의 손끝은

The Republic of Trees

생각의 열매

나무들의 이야기

From a Tree Perspective

Every single branch of us, I mean, trees
As well as of all those, you see, streams
Has its own direction to go
Like human babies' fingers and toes
Or arrows just left from bows
Before the wind blows
Only before the wind blows

But, for you, I know
The time of certainty is gone
You're standing one second before
The thoroughly unknown
This is not your fault
You're wobbling one second before
The wobbling unknown
This is not your fault

나무의 시점

우리의 가지들
저기 보이는 시내들도
각기 길 방향이 있지
아기 손가락 발가락이나
방금 활 떠난 화살처럼 말이야
바람이 불기 전에
바람이 불기 전에는 말이지

하지만 알아, 너한테
확신의 시간이란 게 더는 없지
일 수 없는 것의
직전(直前)에 서 있는 게
네 잘못은 아냐
흔들거리는 모름
앞에서 흔들거리는데
네 잘못은 아냐

Love me as Mosses Do

Tickle my leaves/lips gingerly
And shoulders, and twigs, tenderly
Lay your head on my knee
Rest here eternally
Do not leave like that wind
As the mosses do, Just love me

You may be deeply rootless
Feelings are wandering always
By a reindeer you can now be taken
But let's not talk about our fates

이끼처럼 사랑해 주세요

실며시 앞/입을 간지럽혀 주세요
어깨랑 가지들도 맡예요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요
영원히 여기서 쉬어요
저 바람마냥 떠나지 말아요
이끼처럼, 그저 사랑해 주세요

그대가 뿌리없는 이일 수도 있어요
느낌이란 늘 방랑하는 거기도 하지요
순록이 지금 당신을 앓아갈 수도 있지만
운명에 대해선 우리 얘기하지 말기로 해요

By This Bonfire

Dead bodies of wood
By searing the empty sky
Wrote memoirs in a book
With warm, yellow signs,
All of which
Were about the death of time.
All the letters reached
Toward those yellowed eyes.
Around the fire,
Fire.

행복의
모든
것들이
여기
로
향
하
고
있
다

사망의
모든
것들이
여기
로
향
하
고
있
다

불 곁에서

죽은 나무 몸들이
빈 하늘을 지저
회상기를 적었네
뜨건, 노란 기호들로
내내
시간의 죽음에 관하여.
글자들이 닿았네
노랗게 된 눈으로.
불,
불 곁에서.

생각의 열매

사상원의 문

Late Autumn

I'll let my desires fall
Bye, the world of lights
I'll let my agonies fall
Bye, the seasons of lies
It's time to return
In order to reborn, reborn

행복의
모든
것을
놓아
주

사망의 계절

늦가을

욕망들이 질 수 있기를
빛들의 세계야, 안녕
고뇌들이 질 수 있기를
거짓된 계절아, 안녕
돌아갈 시간이라지
다시 태어나려면은

생각의 열매

20

나와 함께 읽을 책

생각의 여름 3.5
[The Republic of Trees]
2019.2.27

The Republic of Trees

생각의 여름

제작 / BGBG RECORD '곰사장'
프로듀서 / 박종현, 김한주
작사, 작곡, 기타연주 / 박종현
편곡 / 박종현, 김한주
노래 / 박종현, 최새봄(곡 7)
일렉트로닉스 / 김한주
녹음 / 박종현, 신재민(필로스플래닛)
믹싱 / 김한주
마스터링 / 김민수
커버 / 김기조
로고 / 변인희

The Republic of Trees

나무들의 공화국

나무들의 공화국



생각의 여름
손

1. 날씨 (9와 함께)
2. 걷는 이 (박혜리와 함께)
3. 불안에게 (이승준과 함께)
4. 착륙 (김사월과 함께)
5. 너는 내가 (권월과 함께)
6. 손과 손 (강아솔과 함께)
7. 녀 (김일두와 함께)
8. 소리들 (홍갑과 함께)

날씨

오늘이 하나의 정류장이라면
일 년이 정류장들의 숲이라면
버스를 길타고, 길타고

그제와 글피와 지난 달과 새 달을
허물어지고 뭉쳐드는 숲과 내 모습을
무심해질 때까지
무심해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그제와 글피와 지난 달과 새 달을
타들어가고 얼어붙는 숲과 내 모습을
누그러질 때까지
누그러질 수 없음을 기억해가면서

걷는 이

밤은 별들의 빙판이고
몸은 꿈들의 비탈일 뿐
창은 풍경의 의자이고
혀는 노래의 성냥일 뿐

너는 무엇의 집이 아니고
무엇도 너의 집이 아니란다
집은 길 위로 무너지는
모든 것들의 다른 이름이란다

멀리 걸어도 된단다

대작의 여름
은하의 여름

불안에게

친구야, 하나의 파도야
깊고 너른 낮을 걸으며
그걸 삶이라고 부르다가 온

친구야, 하나의 파도야
어깨 위 하얗을 떨으렴
아까 밀라붙은 거품일 테니

일렁여야만 바다는 아니니까
휘청여야만 여행은 아니니까
친구야, 하나의 파도야
동쪽 하늘을 잃은 듯 누워보자

착륙

너는 새이고 하루는 바다이고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뿐인 물

너는 부서지고 하루는 불어오고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뿐인 품

너는 내려앉고 나는 펼벌리고
후-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뿐인 숨

나는 떠오르고 너는 손흔들고
너는 내려앉고 나는 펼벌리고 (너는 새이고)
너는 떠오르고 (너는 부서지고)
나는 손흔들고 (하루는 불어오고)
나는 내려앉고 (나는 새이고)
너는 펼벌리고 (너는 펼벌리고)
후-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뿐인 숨

너는 내가

너는 내가 너의 하늘 아래 나를
너는 내가 너의 풍경 사이 나를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게 하네

너는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하네

△ ▯ ▮ ▯ ▯ ▯ ▯ ▯
○ ▮ ▯ ▯ ▯ ▯ ▯ ▯
▯ ▯ ▯ ▯ ▯ ▯ ▯ ▯

손과 손

너의 손
내일로 떠나는 배
밤을 건너게 해
나의 손도
너에게 그랬으면

서로에 누워
세상 위로
세상 사이로
세상 바깥으로
이윽고
무사히 아침으로
세상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넋

옷장을 엽니다
입어본 적 없는 낯선
이 기분이 내일인가요

창문을 엽니다
있어본 적 없어 낯선
저 마당이 당신인가요

벽 너머가
밖이 아닐 수 있는지를
새벽 너머가
새로 밝을 수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당신에게요

새벽의 여
름

소리들

우리는 모두 서성거리는 모음이라서
골목의 ㄱ, 능선의 ㄴ, 냇물의 ㄹ을 머금으려
애쓰는 마음이라서

우리는 모두 서성거리는 모음이라서
방안의 ㅂ, 달빛의 ㅊ, 아침의 ㅇ을 안아보려
애쓰는 마음이라서

햇볕의 ㅎ을 빌려 지퍼지도록
활활 피어나도록

생각의 여름 4
[손]
2022.7.23

생각의 여름

제작 / 박종현

프로듀서 / 박종현

작사 / 박종현

작곡 / 박종현(곡 1, 2, 3, 4, 5, 6, 7), 홍갑(곡 8)

편곡 / 박종현(곡 1, 2, 3, 4, 6, 7, 8), 권월(곡 5), 홍갑(곡 8)

노래 / 송재경(곡 1), 박혜리(곡 2), 이승준(곡 3), 김사월(곡 4),

박종현(곡 5, 8), 강아솔(곡 6), 김일두(곡 7)

코러스 / 박종현(곡 1, 2, 3, 4, 8), 김사월(곡 4), 강아솔(곡 6)

드럼 / 민상용(곡 1, 4), 양현모(곡 2, 3, 8)

베이스 / 이동준(곡 8)

아코디언 / 박혜리(곡 2)

어쿠스틱 기타 / 박종현(곡 2, 3, 4, 7), 장현호(곡 6), 홍갑(곡 8)

일렉트릭 기타 / 장현호(곡 3, 4)

첼로 / 임이환(곡 6)

피아노 / 박종현(곡 1, 2, 3, 4, 6, 7, 8), 권월(곡 5)

공간음 / 박종현(곡 1, 8), 강경덕(곡 8)

믹싱 / 민상용(스튜디오 로그)(곡 1, 2, 3, 4, 5, 7, 8), 송재경 (곡 6)

마스터링 / 민상용(스튜디오 로그)

커버 / 김기조

로그 / 변인희



아름다운 인생을
영양

생각의 여름

1. 눈사람 속으로 (문태준 시)
2. 모르는 노래 (신해욱 시)
3. 남아 있다 (유희경 시)
4. 오솔길을 염려함 (장석남 시)
5. 원경 (이혜미 시)
6. 이어달리기 (민구 시)
7. 종로사가 (황인찬 시)
8. 잃기 (김복희 시)

눈사람 속으로*

눈이 소복하게 내려 세상이 흰 눈사람 속에 있는
것만 같네 껍질이 보얀 새알 속에 있는 것만
같네 맑은 눈의 아이 속에 실게 된 것 같네 나는
눈 위에 시를 적고 그것을 뭉쳐 허공에 던져보네
또 밤에 하얗게 세워둘 요량으로 눈덩이를 점점
크게 굴려 눈사람을 만드네 눈덩이가 커질수록
나는 눈사람 속으로 굴러 들어가네

생각의 열매

*문태준 시집 『아침은 생각한다』(창비, 2022) 50쪽,
전문.

모르는 노래*

어이. 귀를 좀 빌려줘.

모르는 노래가
내 입 안에 가득 고여 있어.

해야만 할 어떤 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도 나는 여기
있어야만 하는데.

그렇지만 이건 이미 ^{생각의 열}
내가 있기 오래전에 끝난 노래들.

나를 지우고
나를 흉내 내는
무서운 선율.

이봐.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

필시 너는 내 편일 테니
나를 좀
이 노래에서 벗겨줘.

*신해옥 시집 『간결한 배치』(민음사, 2005) 16-17쪽,
전문.

남아 있다*

소년이 있는 작은 공원에는
비둘기가 여섯
겨울나무가 스물

그러니 소년은 비둘기를 쫓고
그림자 가늘은 겨울 가지에는
아무것도 앉지 못할 것이며
하품하는 사람의 턱처럼
새들은 돌아오고 밀 것이며

소년이 있던 작은 공원에는
비둘기가 다섯
겨울나무가 스물

그러니 소년은 흥미를 잃은 참이고
정오의 빛은 저녁의 색으로
공원을 뒤덮어갈 것이며
새 중 한 마리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나무는 어디로도 가지 않을 것이며

* 유희경 시집 『우리에게 잠시
신이었던』(문학과지성사, 2018) 88-89쪽, 일부.

오솔길을 염려함*

나는 어찌하여 이, 뵈지도 않는 길을 택하여
가는가?

어머니의 기도를 버리고 또
세상의 불빛도 아득하게

누군가 내 속에서 이렇게 답하겠지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길이, 내 발 앞으로,
가슴속으로, 눈으로 와 데려가고 있다고

가을 아침의 자욱한 첫 안개와
바짓단에 젖어오르는 이슬들도
오래전부터 아는 듯 걸어갈 테지
어머니의 염려나 무거워하면서 여전히 걸어갈
테지
안개 속으로 난 아득한 오솔길을

*장석남 시집 『고요는 도망가지 말아라』(문학동네,
2012) 27쪽, 일부.

원경*

바래다줄게. 파도가 칠 때마다 해안의 경계선이
손을 내밀듯. 꿈을 밤 가까이 데려오기 위해
우리가 발명한 것들 중 가장 멋진 게 바로
시간이니까.

최대한 위태롭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바다에
가자. 무게를 잊고 팽팽한 수평선 위를 걸어봐.
멀리를 매만지던 눈 속으로 오래 기다린
풍경들이 쏟아지도록.

생각의 열
림

*이혜미 시집 『빛의 자격을 얻어』(문학과지성사, 2021) 9-10쪽, 일부.

이어달리기*

이다음에는
너의 개가 될게

다음 생이 있다면,
죽지 않는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할 운명이라면

이다음에는
너의 개가 될게

더 벌어지지 않는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네가 나를 따라 잡는다면

우리는 서로의 거리를 잊고
각자 어울리는 이름을 새로 지어주자

불 꺼진 조그만 방에서
누가 개인지 사람인지 모르고
쿨쿨 기대 잠든 환한 등짝처럼

사람의 나이로 깨지 않는 꿈을 꾸자

이다음에는
너의 개가 될게

*민구 시집 『당신이 오려면 여름이 필요해』(아침달, 2021) 46-47쪽, 일부.

종로사가*

우리는 이 거리를 끝없이 헤매게 될 거야 저것을
빛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너는 말할 거다 저것을
사람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너는 말할 거고
그러면 나는 그것을 빛이라 부르고 사람이라
믿으며 그것들을 하염없이 부르고 이 거리에
오직 두 사람만 있다는 것, 영원한 행인인 두
사람이 오래된 거리를 걷는다는 것, 오래된 소설
같고 흔한 영화 같은, 우리는 그러한 넓은 것에
마음을 기대며,

생각의 여
름

*황인찬 시집 『희지의 세계』(민음사, 2015) 40-41쪽, 일부.

읽기*

아무도 너를 느끼지 못한다 해도
너는 너를 바람이라고 해
숨이라고 회복이라고
어둠에게,
말해, 어둠이 필요하다고 말해.

너에게 새가 자꾸 날아들게 된다면
새가 자꾸
바람이라고 자신을 담고 가달라고
너를 달라고 한다면

생각의 열매

*김복희 시집 『스미기에 종지』(봄날의책, 2022) 16-18쪽, 일부.

생각의 여름 4.5
[시냇가]
2024.1.12

대한인연
2000

제작 / 박종현

작시 / 문태준(곡 1), 신해욱(곡 2), 유희경(곡 3), 장석남(곡 4),
이혜미(곡 5), 민구(곡 6), 황인찬(곡 7), 김복희(곡 8)

작곡, 편곡, 연주 / 박종현

믹싱과 마스터링 / 민상용(스튜디오 로그)

커버 / 김기조

로고 / 변인희

아름다운
인생의
모모

1

[생각의 여름]

2009.9.18

2

[꽃]

2012.7.26

3

[다시 숲 속으로]

2016.6.27

3.5

[The Republic of Trees]

2019.2.27

4

[손]

2022.7.23

4.5

[시냇가]

2024.1.12

2024.7.22

만든 이 / 박종현

생각의 여름 - 가사들

2009-2024